

## ‘레이디퍼스트’와 ‘피로야 가라!’

대학시절 교양수업으로 연극학개론을 들을 때였다. 전공과목과 다르게 많은 인원이 수업을 채워 늘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그 날만은 달랐다. 이상 히리 만치 강단에 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요는 이렇다.

‘레이디퍼스트’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꽤나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여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라 생각했지만 그 출발은 정반대였다. 중세 유럽, 자객이 난무하던 시대에 여성을 앞세운 것이다.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 지 여성에게 먼저 먹여보라 했고, 미처에 암살자가 땀는지 먼저 태우는 식이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탈리아 바티칸공전을 갔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통 암울한 분위기의 그림들 속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담겨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여성 스스로가 여기 저기 자객으로 표현됐다.

여담이지만, 이를 관람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현자기아드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되레 흥미롭게 들어줬다. ‘레이디퍼스트’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더라.

역시 대학시절이었다. 전공과목 중 하나로 광고카피실무연습이란 수업을 들을 때다. 선생님이 카피 하나를 던졌다. 그 카피는 바로 ‘피로야 가라!’였다. 다들 반가운 표정이었다. 어릴 때 TV에 나와 모델이 외친 그 한 마디를 다들 기억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카피는 기억하는데, 제품이 명확치 않았다. 어떤 학생은 드링크제로, 어떤 학생은 알약으로 기억이 다들 제각각이었다. 그 때 선생님이 한 마디 거들었다. “이 광고가 나간 뒤 경쟁사 피로회복제가 몇 배 이상 뛰었다.” 결국, 그 카피는 실패한 카피였다.

광고에서 카피는 해당 제품을 구매로 잇기 위한 압축적이면서도 함축적인 사적 언어야 한다(물론, 카피에 대한 관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경쟁사 구매를 높였으니 카피의 제 몫을 하지 못 한 것을 넘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후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제약사광고를 유심히 보라. 어떤 훌륭한 카피보다도 해당 제약사 제품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피로야 가라!’ 이후 제약사 광고의 불문율이 됐다.

## 씩틱옴 소식

### 씩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씩ssac’을 띄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문화예술 기부 회원제도입니다.

### 씩ssac티브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화예술 정기 기부를 통해 씩ssac티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씩틱옴 회원이 되시면 수원문화재단 <인인화락> 정기 배송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씩ssac티브 회원 예우사항

주체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 (연간회원)	월 3,000원 이상 연 3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카드 발송</li> <li>기부금 영수증 발행</li> <li>월간 뉴스레터 발송</li> <li>(인인화락) 명단 게재</li> <li>(인인화락) 발송</li> </ul>
	물 회원 (연간회원)	월 10,000원 이상 연 100,000원 이상	연1회 문화꾸러미 발송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인인화락&gt; 광고 게재</li> <li>기획공연 티켓 제공</li> <li>기부자 네이밍 지정</li> <li>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li> </ul>	

★ 문화꾸러미란?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 티켓, 제작하는 기념품 등이 들어 있는 선물상자입니다.

### 박노훈 취재부장 수원일보

올해 초 본격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음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또 살짝, 명제를 살짝 비켜가지만 앞선 ‘레이디퍼스트’와 비슷한 면이 있다. 코로나19 자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다른 결실을 맺기도 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 돌아 갈 리 모를 일이지만 당장 우리나라는 과거 몇 년 어느 때 보다 상반기 향사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 같은 통계는 몇 달 전에도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 감기 또는 독감으로 숨졌다는 인구가 확 줄었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인간의 능동적 개발행위는 되레 자연에 승통을 틈었다. 출발은 사악했지만 개념의 변이를 일으켜 오늘날 정착한 ‘레이디퍼스트’의 관념과 닮았다면 심한 비약일까. 비약이 맞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19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어떤 분야든 돌파구를 찾기에 분주하다. 문화예술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비대면’이다. 비대면 방식 중 문화 예술계에 도드라진 점은 SNS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다.

일부 찬성은 한다. 그러나 제한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좀 더 비약하면 ‘이 때다 심어 무조건 영상을 만들자는 일부 그룹도 있다. 그러나 비대면이 약은 아니다. 문화예술의 본질이 그렇다. 인간과 인간의 대면으로 발생해 왔다. 이후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며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원형예술, 순수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는 한 더욱 그렇다. 연극을 영상으로 관람한다? 그럼 그게 연극일 수 있을까. 아니 그 보다는 굳이 그런 연극을 볼 필요가 있을까.

8월 개막하는 ‘의정부음악극축제’관계자의 글이 기억난다. ‘대면의 끈을 놓지 않으려 고민 끝에 두 차례 연기한 의정부음악극축제 8월로 연기한 보람이 있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정확한 스와트(SWOT)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타깃을 잡아야 비대면이어도 효율적일지, 대면을 고집해야 할 지 판단해야 한다. 과거 ‘피로야 가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씩틱옴 회원(2020. 7. 31. 기준)

#### 햇살 회원

IBK기업은행(동수원지점) (☎신한은행)  
에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수원이안과(이주현) (☎수원이안과(이주현))  
서문동단체장협의회 (☎KT&G(경기본부))

#### 물 회원

(☎월드프라이밍 강남철 권수정 김남훈 김대규 김민규 김민주  
김서연 김승국 김유리 김중수 김지현 김호기 다울정보 박두현  
박래현 박수진 방재영 배영애 신혜숙 안준선 양지석 윤봉기  
이달호 이정민 이정원 임금자 전호정 정근호 조명희 주용수  
채희락 홍순희 황연주

#### 씨앗 회원

강태석 고서진 권오경 김영은 김종찬 김창석 김현익 김현주  
박경홍 박병규 박삼미 박완열 양태인 임주용 윤송기 이경남  
이규영 이선욱 이승윤 이진석 이효진 임선화 진항이 정경선  
정서영 조성면 차광수 최영욱 최진봉 최화선 하진주 한수민  
한정희 황남숙 황승연 회화침방(수원문화관광해설사동아리)



손 안에 문화갈력

#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8  
AUGUST

### 명인열전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격조 높은 무대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다.

일시 8. 14(금) / 8. 28(금) / 9. 11(금) / 9. 25(금)  
장소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문의 전통사업부 031 247 3762



## 수원문화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월간 뉴스레터에 소개된 공연, 전시, 행사, 체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작 당시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재단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이 변동 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8월에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문의 031 290 3600

## 8월 문화소식

공연	
<b>수원전통문화관 &lt;명인열전&gt;</b>	
<b>일시</b> 8. 14(금) 20:00/8. 28(금) 20:00 9. 11(금) 19:30/9. 25(금) 19:30	<b>대상</b> 8세 이상
<b>장소</b>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b>예매</b> 인터파크
<b>요금</b> 전석 30,000원	<b>문의</b> 전통사업부 031 247 3762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격조 높은 무대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전통공연예술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다.

8. 14(금) 안숙선 명인
9. 11(금) 신영희 명인
8. 28(금) 이생강 명인
9. 25(금) 김청만 명인

<b>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 &lt;오페라 살롱 I&gt;</b>	
<b>일시</b> 7. 2(목) ~ 9. 17(목)	<b>요금</b> 무료
<b>장소</b> 수원SK아트리움 유튜브	<b>문의</b> 공연부 031 250 5300
<p>집에서 즐기는 오페라 살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속 대표 아리아와 중창을 담은 오페라 하이라이트 갈라콘서트로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자.</p>	

수원전통문화관 공연 모습

수원전통문화관 공연 모습

<b>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5 &lt;영혼의 내밀한 울림 – 페르메이르VS슈베르트&gt;</b>	
<b>일시</b> 8. 25.(화) 11:00	<b>대상</b> 8세 이상
<b>장소</b>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b>문의</b> 공연부 031 250 5300
<b>요금</b> 전석 10,000원	
<p>전원경 미술관 옆 음악당은 ‘두 명의 예술가’를 주제로 펼쳐진다. 8월, 영혼의 내밀한 울림을 보여줄 페르메이르의 그림과 슈베르트의 음악으로 그들의 그림과 음악을 탐구한다.</p>	

<b>남경주의 뮤지컬 갈라쇼</b>	
<b>일시</b> 8. 29.(토) 15:00	<b>대상</b> 8세 이상
<b>장소</b>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b>문의</b> 공연부 031 250 5300
<b>요금</b> R석 30,000원, S석 15,000원	
<p>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들려주는 유명 뮤지컬 명곡들이 수원시민을 찾아가ندا.</p>	

<b>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하는 클래식 속으로</b>	
<b>일시</b> 8. 22.(토) 17:00	<b>대상</b> 8세 이상
<b>장소</b>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b>문의</b> 공연부 031 250 5300
<b>요금</b> R석 20,000원, S석 10,000원	
<p>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 국내 최정상급 이티스트들의 환상의 앙상블 ‘갈음’,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의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클래식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진다.</p>	

<b>전시</b>	
<b>그림책 아트 프린팅 전시 &lt;알사탕&gt;</b>	
<b>일시</b> 8. 6(목) ~ 8. 30.(일)	<b>요금</b> 무료
<b>장소</b> 바른샘어린이도서관 3층	<b>문의</b> 책문화부 031 216 9373

그림책이 출간된 출판사, 작가의 그림책을 함께 전시하여 풍성한 독서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전시! 책 속 그림을 직접 만나 보는 시간.

알사탕 그림책

<b>관람</b>	
<b>화성행궁 아간개장 &lt;달빛정담, 情談&gt;</b>	
<b>일시</b> 5. 20.(수) ~ 10. 30.(금) 18:00 ~ 21:30	<b>요금</b> 어른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 입장자람 21:00/월 화요일 미운영
<b>장소</b> 화성행궁, 화령전	<b>문의</b> 관광사업부 031 290 3632 ~ 7

화성행궁 야간개장 모습

화성행궁 야간개장 모습

고궁의 밤, 달빛 아래 속삭이는 정다운 이야기. 수원화성의 웅장한 성곽길 야경과 함께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경명소!

<b>행사</b>	
<b>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b>	
<b>일자</b> 2020. 8. 1.(토) ~	<b>문의</b> 책문화부
<b>장소</b>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슬기샘 031 247 7656 지혜샘 031 225 8054
<b>요금</b> 무료(홈페이지 신청)	바른샘 031 216 8132
<p>도서관을 방문하지 못 하는 수원시 거주 18개월 미만 아가와 양육자를 위하여, 그림책 2권이 담겨있는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택배로 각 신청 가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운영.</p>	

<b>체험</b>	
<b>한옥기술전시관 &lt;집에서 만드는 한옥&gt;</b>	
<b>일시</b> 7. 17.(금) ~ 10. 30.(금) 매주 화요일 14:00 접수 오픈	<b>요금</b> 날개 3500원(택배비 2500원 별도) 세트 20,000원 (택배비 포함)
<b>신청</b> 홈페이지 *1인 1개 구입	<b>문의</b> 전통사업부 031 247 9369

한옥기술전시관 대표 프로그램 ‘수원화성 만들기’를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키트가 발송된다.

한옥기술전시관 대표 프로그램 '수원화성 만들기'

한옥기술전시관 대표 프로그램 '수원화성 만들기'

<b>수원이 우산 만들기</b>	
<b>일시</b> 1차 7월 중 / 2차 8월 중(예정)	<b>요금</b> 무료 *선착순
<b>장소</b> 1차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b>대상</b> 1차 어린이, 청소년
2차 홈페이지 접수 예정	2차 수원시민 누구나
	<b>문의</b> 문화예술부 031 290 3555
<p>수원이 캐릭터, 빗방울, 구름 등의 스티커를 활용하여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투명 우산을 만들어볼 수 있는 ‘수원이 우산 만들기’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p>	

<b>다양한 전통을 시식하다 &lt;다시다&gt;</b>	
<b>일시</b> 7. 2(목) ~ 9. 17(목) 매주 목요일 / 12회	<b>대상</b> 수원시민 누구나
<b>장소</b> 수원전통문화관 유튜브	<b>문의</b> 전통사업부 031 247 9369
<p>정현화 선생님, 정호중 선생님, 임종연 선생님이 펼치는 전통요리 교육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유튜브에서 새로운 전통 요리를 배워본다.</p>	

## 마주보기, 하나 수원이 우산 만들기: 장마를 맞이하는 법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이 우산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와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재단에서 추진한 2020 <예술로 다가서기> 사업 중 하나인 ‘수원을 활용한 면 마스크 만들기’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1차, 2차 모두 성황리에 조기 마감되었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의 대표 캐릭터 ‘수원이’가 프린팅 된 면 마스크를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택으로 일괄 발송하여 각자의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드는 비대면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한정된 수량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 수원 시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수원이 캐릭터, 빗방울, 구름 등의 스티커를 활용하여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투명 우산을 만들어볼 수 있는 ‘수원이 우산 만들기’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어린이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연계 협업하여 1차 프로모션을 진행하니 7월 중 어린이도서관에서 수원이 우산을 만나보자. 도서관 공간 조성 관련 설문조사, 북스타트 책꾸러미, 어린이도서관 SNS 인종 이벤트 등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수원이 우산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8월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수원시민 누구나 받아볼 수 있으니 수원과의 함께 장마를 맞이해보자.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이 우산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 슬기샘어린이도서관 공간조성 관련 설문조사 참여 및 도서관 SNS 인종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배부
  -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도서관에 방문하여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수령한 어린이에게 배부
  -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방문 어린이에게 종이 뿔기 이벤트를 통해 우산 배부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별 선착순 200개 한정
- 문의 문화예술부 031 290 3555

## 모아보기 재단 문화시설 모아보기: 전통, 그 멋스러움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을 더욱 멋스럽게 빛내주는 여러 '전통'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원전통문화관, 한옥새움(한옥기술전시관), 화서사랑채, 화홍사랑채 등이 그것인데 오늘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설 중 '수원전통문화관'과 '한옥새움'을 소개한다.



화성행궁 광장에서 도로변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멋스럽게 가꾸어진 한옥시설들이 단연 눈에 띈다. 2015년 3월 개관한 ‘수원전통문화관’이다. 수원전통문화관은 크게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을 운영 중이다. 전통식생활체험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조리실, 교육장, 전시실과 제공헌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다례 및 식문화 교육 및 전시 등을 통해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꽃 컵실기와 꽃차를 만들고 시용해보는 전통병과 프로그램 <화중자병, 그림의 떡>과 상설 전시 <사랑방, 선비를 만나다> 등도 작년 이곳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예절교육관’은 예절실, 체험실 대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전통 예절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예절, 규방공예 등의 전통예절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다. 예절관에서 진행되는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 프로그램>은 생활 속 기본 예절과 전통예절, 다식 다례체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원전통문화관 옆에는 커다란 현관을 단 한옥건물 ‘한옥새움’이 있다. 기존 한옥기술전시관의 새로운 이름 ‘한옥새움’의 뜻은 한옥을 새로운 기술로 현대에 맞게 새로 세움을 뜻한다. 이곳은 2017년 9월 개관해 미디어와 체험이 결합된 두 개의 테마 전시실과 한옥 특별강의 및 체험이 가능한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한옥을 짓는 과정, 한옥 기술 등에 대한 전시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수원화성만들기(한옥3D 입체퍼즐만들기)> 등이 한옥새움에서 진행되었으며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한옥이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마주보기, 둘 다양한 전통을 시식하다: 다.시다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이 우산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코로나19로 전통식생활체험관의 요리체험 프로그램들을 중단했다. 몇 달 동안 굳게 닫혔던 식생활 체험관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수원문화재단은 온라인 요리 프로그램을 ‘수원전통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시다: 다양한 전통을 시식하다>는 정현화 선생님, 정호중 선생님, 임종연 선생님이 펼치는 전통요리 교육프로그램으로, 7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주1회씩 업로드 되어 총 12회의 요리 콘텐츠로 구성된다. 정현화 선생님의 퓨전한식 ‘몽골리안 스타이크’과 ‘깻잎말쌈’이 차례로 그 첫 선을 보였다. 전통요리법을 소개하고 그 재료와 알맞은 조리법 등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시민들이 전통요리를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이어 조선왕조 궁중병과 전수자 정호중 선생님의 전통간식, 조선왕조궁중음식 아수자 임종연 선생님의 나박김치 등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9월까지 이어지는 <다시다> 영상으로 집에서도 다채로운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보자. 유튜브에 ‘수원전통문화관’을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이 우산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 둘러보기 화성행궁 아간개장: 달빛정담, 情談

올해 5월 20일 개장했던 화성행궁 아간개장 <달빛정담, 情談>이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7월 1일부터 다시금 문을 열었다. 화성행궁 아간개장은 비대면 방식의 관람으로 진행되지만, 철저한 예방을 위해 관람객에게 손소독과 마스크착용은 필수이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성행궁 아간개장 달빛정담’이라는 커다란 문구로 입구를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여행주간(7. 1. ~ 7. 19.)’ 시기에 맞춰 화성행궁을 재개장하여 지역 속 안전한 여행지에 동참한다. 수도권 방역대책에 따라 그동안 멈췄던 주간개장과 더불어 아간개장도 함께 한다. 수원화성 아간개장 ‘달빛정담(情談)’은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화성은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아간관광 100선 선정, 7월에 가볼 만한 아간여행지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이번 수원화성 재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코로나블루(코로나 우울증)를 극복하기 위한 활력 회복, 생활 속 힐링을 원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요청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야외 문화재라는 공간적 특성에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공연 및 해설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시설의 관람을 위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역대책 또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제한, 관람 시 거리두기는 기본이다. 이를 위해 화성행궁 2M 거리두기 시 최대 수용인원인 3,359명의 75% 수준인 2,500명을 시가내 최대 동시관람인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말 아간개장에는 대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입장 시스템 운영, 기존 신분루에서만 운영되었던 출구를 화령전까지 확대를 준비 중이며, 안전관리 인력 또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0월까지 운영되는 화성행궁 아간개장 달빛정담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화성행궁을 방문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보길 바란다.

문의 관광사업부 031 290 3632 ~ 7

